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대의 애국유산으로 물려주신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당을 따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선의 고비도, 험난한 진격길도 함께 헤쳐온 것처럼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이번

에 진행되는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서도 세상에 없는 군민단결의 위력을 다시금 과시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의 곳곳마다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고 힘있는 직판선물들이 게시되어있는데 힘이 난다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건설장의 분위기만 보아도 당의 전투명령을 결사관철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인민군장병들의 애국충정의 마음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이미 살던 집보다 더 멋있고 현대적이며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자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서 기본대상의 살림집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라고 지시하시였다.

살림집건설을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자면 전시물자, 전시수송을 보장한다는 관점으로 세멘트와 강재 등을 제때에 건설장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한 마음 우리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훌륭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헌신분투해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 더 잘 받들어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전투현장에서 비움게된 군인건설자들이 러쳐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오래도록 손을 저어 답례

자재보장과 수송대책을 더욱 빈틈없이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립체전, 섬멸전, 속도전을 벌려 살림집들과 공공건물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계의 요구대로 건설에서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며 살림집구역과 주변지대정리사업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라고 하시면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셔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사량이 방대하고 공사기간이 짧은 조건에 맞게 지휘관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모든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진행하며 부대별 경쟁을 활발히 벌리고 매일 과제수행정형총화를 전투총화처럼 엄격히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삼의 흠을 뜨고 한장의 불로 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삼의 흠을 뜨고 한장의 불로 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삼의 흠을 뜨고 한장의 불로 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삼의 흠을 뜨고 한장의 불로 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삼의 흠을 뜨고 한장의 불로 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삼의 흠을 뜨고 한장의 불로 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자들이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진행하면서 인민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투과정에서 그 대로 백두산혁명강군의 정규화적면모를 과시하고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 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건설자들이 당의 결심이라면 산악도 떠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당장건 일흔흔전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끝냄으로써 10월의 하늘가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삼의 흠을 뜨고 한장의 불로 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삼의 흠을 뜨고 한장의 불로 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삼의 흠을 뜨고 한장의 불로 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삼의 흠을 뜨고 한장의 불로 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삼의 흠을 뜨고 한장의 불로 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삼의 흠을 뜨고 한장의 불로 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삼의 흠을 뜨고 한장의 불로 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삼의 흠을 뜨고 한장의 불로 크를 쌓아도 자기 고향마을을 가꾸고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일함으로써 피해지역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 공동리사장과 만파 외무성 부장이 꽃바구니와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 공동리사장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 공동리사장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 공동리사장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만파외무성 부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파외무성 부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파외무성 부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본사기자

영생하시는 선군대양 김정일령도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5돐을 세계적관도에서 의의깊게 경축

장장 반세기를 넘은 성스러운 선군혁명실적을 수놓으시며 조국과 인민을 지켜주시고 반제자주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민을 다함없는 경의를 드리고있다.

정충하였다. 한편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구위원회 위원장,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소 위원장은 이 나라 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차게 싸워나가지요를 이란 하티라울 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지아신문 《브레코 베레코 + TV》, 수리아신문 《알 사이드》, 쿠웨이트신문 《알 사이드》, 도이힐란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주체사상연구 기념전국위원회 불매등이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5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5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본사기자